

국정교과서 신청했다 혼쭐 난 고등학교

광주 대동고 사립학교 법인협의회 권유에 20권 신청

안일한 인식 비판 빗발치자 취소…광주교육청도 당혹

광주대동고가 광주·전남 중·고교 가운데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를 활용하겠다고 신청했다가 취소했다. “도서관 비치용”이라는 학교측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정 역사교과서의 부실·왜곡 사례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는 점에서 안일한 상황 인식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광주시교육청은 7일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활용 희망 신청서 접수 결과를 토대로 광주지역 중·고교를 대상으로 신청 여부를 파악한 결과, 광주대동고가 신청서를 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광주대동고는 애초 “도서관에 비치해 참고용으로 활용하겠다”며 20권을 신청했다가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이날 교육부에 국정 역사교과서 신청을 취소키로 했다. 전국적으로는 83개 중·고교에서 3982권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측은 한국 사립초·중·고 법인협의회의 권유를 받고 ‘학생들 교육 교재’가 아닌, 도서관에 구비해놓을 용도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동고 이사장은 광주 사립초·중·고 법인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광주교육청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정

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 당시부터 ‘반역사적, 반교육적’이라며 폐기를 촉구해 온데다, 연구학교 지정 뿐 아니라 ‘학교 도서관 비치’ 등에 대해서도 어느 교육청보다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혀왔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광주에서 반헌법적·반민주적·반교육적인 국정 역사교과서를 신청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교육청의 정책 방침이 일선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말도 흘러나온다. 일각에서는 광주교육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압박 정책과 연관지어 해석하는 분위기기도 감지된다.

학교측이 역사교육학계를 중심으로 수차례 부실·왜곡 서술 문제점 등이 제기됐음에도 소홀하게 다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역사교육연대회의 등은 국정교과서 최종본을 분석, 고등학교 한국사 최종본에 대해서만 653개의 오류가 발견됐고 5·18 민주화운동과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의미·내용 축소, 호남 의병 활동 누락 등 부실·왜곡 서술 사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학교 관계자는 “사립학교 법인협의회에서 교과서를 보낸다고 한 권 정도 봐서 뭐가 잘못될까 싶어 신청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커질 줄 몰랐다”면서 “신청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남대 사범대 부속중·고등학교 등 전국 28개 국립학교에도 교과서를 배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한밤 70대 노부부 무차별 폭행 30대 구속

70대 노부부가 밤길 집 앞 골목에서 30대 취객에게 3분여간 무차별 폭행을 당해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경찰은 붙잡힌 남성이 반성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상대로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 수사 중이다.

광주서부경찰은 노부부를 때려 부상을 입힌 혐의(상해)로 강모(30)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달 25일 광주 서구 쌍촌동의 주택 골목에서 박모(76)씨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린 혐의다. 경찰이 제공한 2분39초 짜리 CCTV영상을 보면 강씨는 175cm 이상의 건장한 체격으로 한눈에 봐도 몸이 구부정한 70대 노인인 박씨의 가슴을 두 손으로 세차게 밀어 넘어뜨린다. 강씨는 술을 마셔 몸을 비틀거리면서도 주먹가 뒷길에 쓰러져있는 박씨를 주먹과 손바닥, 발로 수차례 때린다. 3분가량 일방적으로 무차별 구타를 당한 박씨는 여성 2명이 다가와 말리는 틈을 타고 도망가듯 자리를 뜨면서 귀가해야 했다.

심하게 구타당한 박씨는 쇠파이프를 들고 치료받는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CCTV영상에 담긴진 않았지만 강씨는 큰 소리를 듣고 골목으로 나와 자신을 말리던 박씨 아내(71)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사건 당일 강씨는 만취한 상태로 골목을 서성거리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박씨에게 “도와 달라. 집을 못 찾아가겠다”고 말을 걸었다고 한다. 이에 박씨가 “여인이 다 된 내가 젊은이를 어떻게 도와주겠나”라는 대답을 내놓자 격분해 마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과 7범인 강씨가 상해 등 중증 전과가 있는 점, 도주 우려가 있는 점,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해 구속수사 중이다.

경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박씨 부부가 병원비와 간호비를 도움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지원센터 지원을 요청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강진 오리농장 AI H5N8형 확인…16만마리 살처분

전남도는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강진 육용오리 농장의 열 청형이 H5N8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이 농장에서는 지난 5일 오리 210마리가 폐사해 방역 당국이 AI 감염 여부를 조사했다. 당국은 발생 농장을 포함해 농장 반경 500m 이내에서 사육 중인 닭 9만마리, 오리 7만900마리 등 모두 16만900마리를 살처분했다.

울거울 전남 AI 발생 건수는 8개 시·군 24건으로 늘었으며 84농가 160만1000마리가 살처분됐다.

전남도는 오는 10일까지 씨오리 7개, 육용오리 74개 등 81개 다슬 계열농가에서 임상 예찰을 하고 25일령 이상 오리가 사육 중인 37곳에서는 감염 여부를 검사한다.

다슬을 포함한 사조화인코리아, 정다운, 성실농산 등 주요 오리 계열사와 계약한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관리 상황과 방역기준 준수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옛 도청 보존 회의 앞서 민주평화교류원 둘러보기

7일 ‘옛 전남도청 보존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단 회의를 앞두고 윤장현 광주시장 등 대책위 관계자들이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옛 전남도청 본관과 경찰청사)을 둘러보고 있다. 민주평화교류원 내부 광주 민주화운동 전시 콘텐츠가 외부 공개된 것은 문화전당 건립 이래 처음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세월호 빠르면 내달초 인양 시도

이달말까지 준비 작업 완료

목포에 합동수습본부 가동

정부가 이르면 4월 초 세월호 선체 인양을 시도한다. 첫 수중조사를 시작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말까지 준비 작업을 모두 완료하고 4월에서 6월 사이 세월호 인양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양업체인 상하이셀비지는 현재 세월호 선체에 설치한 리프팅빔에 인양줄(와이어) 66개를 매는 작업을 끝냈다.

이번 주 중 잭킹바지선 두 척이 모두 도착하면 해당 와이어를 바지선 한 척당 33개씩 연결하는 공정을 하게 된다.

상하이셀비지는 세월호 인양에 쓰인 반잠수식 선박의 부력을 높이려고 중국에서 에어폰툰(물탱크 형태의 대형 에어백) 2개를 설치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

이철조 세월호선체인양추진단장은 “반잠수식 선박의 적재 능력이 7만t을 상회하지만 더 안전한 인양을 위해 에어폰툰을 부착하기로 했다”며 “작업은 열흘가량 걸려 이달 중순까지 끝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달 말까지 잭킹바지선 와이어 연결, 반잠수식 선박 투입 등 준비 작업이 모두 끝나면 4월 초부터 본격적인 인양이 시작된다.

잭킹바지선 두 척이 세월호를 사이에 두고 자체 탑재한 유압잭의 힘으로 와이어를 끌어당기면 선체가 해수면 위로 떠오른다.

이후 반잠수식 선박에 세월호를 탑재해 약 80km 떨어진 목포신항으로 옮겨 부두에 거치하면 인양 작업이 마무리된다.

인양 시도 후 완료하기까지는 15~2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인양 작업은 파고 1m 이하, 풍속 10% 이하인 소조기에만 시도할 수 있다. 소조기는 15일 간격으로 한 달에 2번 존재한다.

정부는 세월호를 목포신항에 거치하는 시점에 맞춰 10여개 관련 부처와 단체들이 참여하는 합동수습본부를 가동할 계획이다.

본부는 종합상황실, 작업 인력 대기실, 유가족 지원실 등 40여개의 크고 작은 이동식 건물로 이뤄진다. 팽목항에 있던 미수습자 지원 시설 10개도 목포신항으로 옮긴다.

세월호 인양 시기가 조기 대선과 맞물린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외부 변수의 영향이나 정치적 고려는 있을 수 없다”면서 “모든 인양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학부모에 돈 받고 성적 조작한 교사 기소

광주지검은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성적을 올려준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공전지기록 등 반자 및 행사)로 광주 수피아여고 교사 A(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한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좋은 성적을 부여해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총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1월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접속, 해당 학생의 수학 수행평가 점수와 지필평가 점수를 올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시민위원회 의견에 따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수사 경과와 이미 확보한 증거로 미뤄보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또 2015년 4월 모 대학교 학생이 교생실습을 받은 것처럼 평가서를 허위작성, 이를 해당 대학교에 제출한 혐의(업무방해)로 이 학교 전 교장 B씨를 약식기소했다. 이와 관련 조사를 받았던 이 학교 교사 12명은 모두 혐의없음 처분됐다.

/박정욱기자 jwpark@

“왜 내 치킨 먹어” 후배 담뱃불로 지지고 나체사진 찍어

○…자신이 주문한 치킨을 먹었다며 후배의 팔에 담뱃불로 화상을 입히고 나체사진을 찍어 타인에게 전송한 21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

○…A(21)씨는 지난해 7월에 광주의 한 지역 동네후배 B(17)군의 집에서 자신이 주문한 치킨을 B군이 먹었다는 이유로 담뱃불로 B군의 왼쪽 팔 부위를 지저 화상을 입히고, 목욕 후 나온 B군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찍어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

○…광주지법 형사3단독 성인혜 판사는 “미성년자인 B군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체를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B군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설명.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싸고, 투자,가치있는물건, 사정상 매매함.

주인직매 H. 010-3605-5000

인터넷으로 위치 확인하고 전화요망

거문도, 펜션부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변촌마을)

■ 대지, 계획관리지역

■ 마을회관 바로 옆, 전망최고

■ 1260 - 1번지 - 114평

1260 - 2 번지 - 90평

1376 - 2번지 - 67평

1351 - 4번지 - 182평

1352번지 - 58평

1353번지 - 69평

■ 장/단기 투자까지 최고

■ 매매 - 평당 35만원

나주,다도면 임야

■ 전남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191-17번지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상수도 전기 통신설비, 부지입구까지 인입됨

■ 전원주택 허가 필, 기타 모든 개발가능

■ 나주호 휴양림 / 둘레길 진행중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11억 3800만원 (평당 80만원)

광양시, 근린상가

■ 전남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홈플러스 남동쪽에 위치)

■ 6층 건물 중 4층 전체, 2012년 신축

■ 분양평수 210평, 실평 147평

■ 점포 및 상가 성숙 발전지역

중동 라히호텔 근처

■ 모든업종 오픈 가능

■ 감정/시세 - 13억

■ 급매 - 8억 8천만원 (일시불 조정가)

나주, 남평읍 토지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외 6필지 (532-1,2,11,31,33,47번지)

■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거리

■ 현재 양어장 운영중 (4월 철거 예정)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70만원씩 분양중

■ 모든업종 개발 가능

■ 매매 - 18억 7600만원 (평당 30만원)